

‘녹두서점’서 5월 읽고…‘미래형 벤치’서 쉬고



내일~11월 6일 37개국 120여 작가 참여

80년대·빛·난민·투쟁... 전시관 여형

용봉동·증심사·담양·해남 등서 열려

‘2016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행사는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37개국 101작가(120명)가 참여한다.

31일 미리 가본 비엔날레 전시관 제1전시실은 개성어린 작품을 여윌듯 배치해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녹두서점-산자와 죽은자, 우리 모두를 위한’도 본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벽면 가득 옛 녹두서점에 진열됐던 수 천권의 서적들이 꽂혀있고 입구에는 80년대를 기억하는 대자보가 보인다. 또 가판대에는 각종 팸플렛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일간지도 배치했다.

벽면에는 광주 출신 박인선 작가 작품 ‘뿌리’가 걸려 있었다. 단조로운 배경 앞에 크레인에 걸려있는 허물어진 집이 등장한다. 재계발로 인해 지금은 없어졌지만 실제 광주에 있던 집들이다.

토미 스톡켈이 광주에서 본 무등산 입석대, 표지석 등 큰 돌을 모티브로 한 ‘광주 돌’ 작품도 눈에 띈다. 종이를 이용해 24개 돌들을 컴퓨터 3D 모양으로 제작했다. 그 옆으로는 타일러 코번이 제작한 ‘인체공학의 미래’가 설치됐다. 코번 작품은 4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유전학자, 진화 생물학자들과 함께 인간 진화에 대해 이야기는 나눈 후 미래 인체를 상상하며 만든 벤치다.

출구에 설치된 대형판벽은 핀란드 출신 알마 헤이킬라가 제작한 ‘시공간에 광범위하게 흩어진 것들’이다. 판넬 사이사이를 거닐며 추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전시실을 들어서면 온통 캄캄하다. 곳곳에 배치한 영상 작품, 빛 조각 등이 특별한 분위기를 만든다.

전소정 작가는 모니터 7개를 나란히 배치해 ‘예술하는 습관’작품을 선보인다. 한 손으로 성냥개비를 켜거나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는 모습이 상영된다. 예술이란 불가능을 시도하는 일이라는 작가 생각을 표현했다.

전시장 군데군데에서 보이는 비닐로 싸인 네모난 철제구조물은 아나카 이가 출품한 ‘우리는 물, 치우지 마시오, 30일 뒤에 귀가’ 작품이다. 안에 말린 새우, 해초 등을 배치해 강한 빛을 쏘인다. 공사장, 수족

여기

관 등에서 말았던 냄새가 나는게 특징이다.

3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면 2전시실과는 달리 밝은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중앙에 설치된 넓은 나무 무대는 나타샤 사드르 하키키안이 설치한 ‘레오파드 2A7+’다. 탱크 ‘레오파드’ 크기와 동일한 면적이다. 누워서 헤드셋으로 음악을 듣거나 작품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장에는 리 장후 작가가 만든 ‘하얀 구름’이 설치됐다. 형광등 수십개를 구름 모양으로 배치했다. 산업단지 공장 불빛에서 영감을 얻어 도시 노동자 생활과 인간 사회 욕망을 담은 작품이다.

3전시실을 나오면 난민을 경험했던 바비 바달로프가 여러 언어로 정치, 사회 이슈를 표현한 ‘카-팩-달리즘’을 만날 수 있다. 작가 특유 문양으로 표현한 ‘종교, 소비지상주의, 조직, 인권’ 등 한국어도 보인다.

4전시실은 여백이 느껴지는 시원한 분위기다. 소수 추상적인 작품들을 배치해 잠시 쉬어가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데 달마완은 한쪽 벽면을 활용해 길게 그림 ‘몽유병 주식회사’는 이제는 문을 닫은 인도네시아 출판사에서 출간했던 책 표지를 그려넣었다. 상상 속 국가 것처럼 여러 지역 상징처럼 보이도록 의도했다.

5전시실로 내려가는 통로에서는 데일 하딩이 작업한 벽화 ‘무제’가 보인다. 호주 원주민 전통기법인 ‘스텐실’에서 영감을 받아 벽에 손을 댄 후 황토를 붙여 자국을 남긴 작품이다. 재료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투쟁과 지배의 역사를 표현했다.

5전시실은 폴린 부드리, 레나테 로렌스 등 여성 아티스트 듀오 영상 작품이 상영된다. 젠더와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 쿼어 문화를 주제로 작업한 대형 영상작품을 출품한다. 관객들은 신발을 벗고 편안히 의자에 앉아 감상할 수 있다.

로비에는 설박, 김용철 등 포스트리오 선정 작가 회화 작품이 배치됐다. 김용철 작가는 눈을 가린 검은개를 강렬하게 묘사한 작품을 출품했고 설박 작가는 화선지를 먹으로 염색한 후 중첩시켜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한 산수화를 선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증심사 미술관·문화전당·민주화운동기록관

‘2016 광주비엔날레’특징은 용봉동 전시관 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본 전시를 열어 지역과 소통하는 점이다.

우제길미술관에서 작업하는 네덜란드 사스키아 누어 판 임호프는 ‘#+26.00’작품을 완성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해 온 높이 3m 대형 아크릴판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파랑, 빨강, 노랑 등을 겹쳐서 보면 다른 빛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 관람객들을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무등현대미술관에서는 네덜란드 베른 크라우스가 광주 시민과 등산객, 여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 ‘정원이 아닌 정원(T.U.N. Tradgard Utan Nann)’을 선보인다. 무등산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주목해 등산을 소재로 다양한 설치 작품을 공개한다.

구닐라 클링버그는 의재미술관을 변신시켰다. 한국 샤머니즘, 오행, 산 등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 ‘고요함이 쌓이면 움직임을 생긴다’를 만들었다. 외벽은 작가 특유 문양으로 꾸몄고 전시장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대형 대나무발을 설치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지하2층에서는 크리스토퍼 콜렌드란 토마스가 ‘뉴 일람(New Eealm)’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뉴 일람’은 지난 2009년 내전으로 지도에서 사라진 스리랑카 마을 이름이다. 마을을 형상화한 대형 설치 작품을 통해 독립, 평등 정신을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

저기

과 대비시켜 보여준다.

뉴 일람 옆 공간에서는 광주미술협회가 주관한 ‘비엔날레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빛, 생명, 물질(光·生·物)’을 주제로 한 국내, ‘공상공화국(0380 화국)’ 주제 국외 작품을 전시한다.

두암2동 누리봄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아폴로니아 슈스테르쉬치와 배다리 작가가 지난 4월부터 누리봄 커뮤니티센터와 협업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두암동’ 작품이 상영된다.

광주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도 전시장으로 바뀐다. 1분 분량 영상 ‘단결된’은 2006년 진압 경찰이 손 최루탄에 맞아 희생된 터키 이스탄불 초등학교생이 등장해 최루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 비영리민간단체 ‘한새봄 두레’와 손잡았다. 개구리논을 무대로 환경오염, 농업을 다룬 연극 ‘도롱논의 비탄’을 9월3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오후 6시 30분~7시 30분, 9월4일 오후 5시~오후 6시 세차례 공연한다.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는 멕시코 예술가 집단인 ‘코퍼레이티바 크라터 인베르티도’ 등이 ‘아랍의 봄’ 등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정치·사회적 이슈와 광주 역사를 공유하는 다양한 설치 및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에 설치된 시각예술분야 2인그룹 메타헤이븐(Metahaven)의 ‘정보의 하늘’.



비엔날레 광장에서 볼 수 있는 ‘나도·비엔날레’ 참여작품 ‘초록우산과 함께 Green 꿈’.



네덜란드 사스키아 누어 판 임호프가 우제길미술관에 설치한 ‘#+26.00’작품.

휴관일 없이 오전 9시~오후 6시 관람

송정역·버스터미널 셔틀버스

‘2016 광주비엔날레’ 기간(9월2일~11월6일) 중 휴관일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은 오후 5시30분까지 할 수 있다. 티켓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판매한다.

입장권은 어른 1만4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단체(20인 이상)와 특별할인권도 준비돼 있다. 행사 전 기간 통용권은 어른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이다.

온라인에서는 재단 홈페이지와 NHN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예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시관을 비롯해 기아챔피언스필드 매점소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목포역,

나주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도스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모두 11차례 진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1시간 30분 정도다. 최대 인원은 20명이며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별도 예약없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입구, 도스트 데스크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재단은 송정역, 광천동 버스터미널,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이 사이트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전시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과 코레일 패키지 상품도 출시됐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인 7만4600원으로 왕복 열차 티켓과 예매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40. www.gwangju-biennale.org. /김용희기자 kimyh@

담양 담빛예술창고·해남 행촌미술관 기획전

올해 비엔날레 특징 중 하나는 전시장이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산했다는 점이다. 본 전시는 비엔날레 전시관을 포함해 의재미술관, 5·18 기록관 등에서 관객들을 맞고 지역의 10개 사립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는 다양한 주제로 ‘2016광주비엔날레 기념전’이 열린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전남지역 미술관 및 갤러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담양의 대담미술관 등 모두 10곳을 선정했다. 특히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전남 지역 미술관에 둘러 주변 여행까지 하면 일석이조다.

낯은 양국 창고를 개조한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는 ‘컨템포러리 아트 담빛 미래를 열다’전이 열린다. 김상덕·김 원·노여운·라규재·배수민·백상옥·송필용·신창운 등 광주 전남북 지역 작가 15명의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해남에 자리한 행촌미술관은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전시를 진행한다. ‘고라니가 키우는 콩밭’(배짱이농부네 예술창고), ‘낙원 가까이 해장’(해장주조장), ‘녹우당에서 공재를 상상하다’(녹우당 충현각) 등이다.

거기

또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박준석 작가의 ‘SHADOW IN THE MORNING’전이 열린다. 광주 시내 갤러리도 동참했다. 롯데갤러리에서는 5·18 당시 사진 기자로 활동했던 나경택씨의 작품을 통해 우리 시대를 돌아본 ‘나경택 사진전’(10월7일~11월2일)이 열리며 한희원미술관은 ‘근대 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의 정신전’(10월1일~11월30일)을 진행한다.

또 515갤러리, 갤러리 씨니, 소아르갤러리, 더 프로방스 갤러리가 뭉친 ‘카가 갤러리 연대’는 ‘컨템포러리 아트 인 광주’를 개최하며 발산마을 창고를 개조한 공유공간 뽕뽕브릿지에서는 ‘点·火 2016’전(9월4일~11월)과 뽕뽕브릿지 공간 공유 프로그램 보고전(9월20일~10월2일)을 연다.

은암미술관은 요즘 유행하는 ‘타투’를 소재로한 전시회를 준비했다. ‘현상학적 미학의 타투전’(9월8일까지)에는 한솔(김동혁), 김세형, 지강(문병일), 백경원, 윤미호씨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그밖에 무등산 자락 국윤미술관은 강선호, 김재희, 김현주, 송영학, 신호운 작가 등을 초청해 ‘인연, 그 후’전을 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